



'FaceBook 창업자' 주커버그의 삶과 꿈... 그리고 사랑

“페이스북은 My Baby 지켜보고 보살피고 성장시킬 것”

페이스북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주커버그가 미국 주간지 '더 뉴요커' 최신호에 자신의 신상을 자세하게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뉴욕에 인터넷판은 최근 '페이스북의 얼굴(The Face of Facebook)'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CEO 주커버그와의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 페이스북에 얽혀진 각종 정보, 컴퓨터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인 유복한 성장기, 최근의 소박한 일상과 여자친구, 꿈 등을 소개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이 파란색 일색인 것은 자신이 적록 색약이어서 파란색을 가장 잘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현재와 다른 형태의 인터넷을 개발하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다.



◇주커버그의 페이스북 = 여동생 3명과 부모 등 모두 879명이 친구로 등록돼 있다. 코미디언 앤드루 스타인과 테일러 스위프트, 사키라 등의 음악을 좋아하며 친구가 되면 이메일과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준다.

컴퓨터에 천재적 재능 발휘 하버드대 2년 중퇴후 창업

최근에는 페이스북의 위치정보서비스 '플레이스'를 통해 그의 행적추적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8월29일 새벽 뉴욕 에이스호텔에 있던 그는 같은 날 오후 7시8분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의 본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달 31일 오후 10시38분에는 여자친구와 인근 마운틴뷰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식사를 하는 것이 포착됐다.

그의 페이스북에는 '세계를 더 공개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I'm trying to make the world a more open place)'라고 적혀있다.

◇주커버그의 성장기 = 뉴욕에서 자란 주커버그는 '고통없는(painless) 닥터Z'로 알려진 치과 의사 에드워드 주커버그와 정신과의사이지만 양육을 위해 진료를 그만두고 남편 사무실 매니저로 일하는 캐린 주커버그 사이에서 태어나 유복하게 자랐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에 천재적 재능을 발휘했다. 환자가 도착했을 때 병원 컴퓨터마다 이를 알려주는 네트워크를 직접 만들어 주크넷(ZuckNet)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부모는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11살 때 컴퓨터 개발전문가의 과외를 받게 했다. 그는 특히 명문고교인 필립스엑스터카카데미 진학 후 펜싱부 주장을 맡고 클래식 학위도 받는 등 기존의 '컴퓨터 괴물'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고교 때 친구들과 만든 인공지능으로 청취습관을 파악하는 판도라 초기 버전 수준의 '시넵스'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명해졌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그를 채용하려고 했지만 거절하고 하버드대에 진학했다. 그러나 2학년 말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페이스북을 창업했다.

◇여자친구와 일상 = 2학년 때 유대인 친목동아리 파티에서 현재의 여자친구인 보스턴 출신 중국계 프리실리아 쉐를 만났으며 이달 초 페이스북에 동거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켄이 이번주 이사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모든 가재도구가 2배가 될. 필요한 게 있으면 버리기 전에 와서 가져갈 것"이라고 울려 놓았다.

켄은 현재 캘리포니아주립대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의 의대 3년차로 소아과의사가 장래희망이다. 이들은 대부분 주말을 함께 보내고, 매년 12월 2주간 해외여행을 간다. 올해는 중국으로 가기로 하고 주커버그는 중국어를 공부 중이다.

주커버그는 모든 집을 미국의 커뮤니티 사이트로 부동산과 구입구지 등이 가능한 '크레이그스리스트(Craigslist)'에서 구했다. 실리콘밸리의 첫 집은 친구들이 '쓰러져가는 동굴'이라고 부른 방 한 칸 아파트였으며 현재는 방이 4개인 광범한 단독주택을 빌려서 살고 있다. 그는 이 집이 너무 크다고 생각

하지만 주변에서는 그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부자'라고 부른다. 자동차도 일제 중형승용차를 타고 있다.

페이스북에 파란색이 많은 것은 그가 적록색약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몇년전 온라인 테스트를 통해 스스로 알게됐다. 그는 "파란색이 나에게 있어 가장 풍부한 색"이라며 "나는 모든 파란색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꿈 = 페이스북을 창업한 뒤 2005년 MTV네트워크로부터 7500만달러에 팔리는 인수제안을 받은 것을 비롯해 야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으로부터 매각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다.

10억달러에도 흔들림 없어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개발

주커버그에게 10억달러를 제안했던 야후의 전 CEO인 테리 세멜은 "나와 관계없이 10억달러를 보고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당시 주커버그는 "이건 가격이 문제가 아니다. 이걸 내 아이(baby)이고 지켜보고 보살피고 성장시키고 싶다고 말했다고 세멜은 기억했다.

주커버그는 궁극적인 꿈이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웹상에 나타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형태로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다 심오하게 알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윙크하는 로봇' 귀엽지 않아요?

지난 15일 코엑스에서 개막한 IT분야 국내 최대 규모 채용박람회 '한이음 일자리 엑스포 2010'에서 관람객들이 한국기술교육대학 학생들이 제작한 감성로봇(K-EBO)을 관람하고 있다. 이 감성로봇은 사람과 같은 모양을 하고 바퀴로 이동하며 얼굴의 모양과 팔의 움직임으로 감성을 표현하는 로봇으로 입을 움직여 웃음 짓고 눈을 깜박거리는 동작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뜨거운 목성'들은 오래전에 사라졌다



별이 촘촘히 들어 차 있는 구상성단에서 외부행성을 찾는 학자들이 주목하는 고온의 가스 행성인 '뜨거운 목성'들은 대부분 오래 전에 중심별의 거대한 기조력에 의해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는 최신 연구가 나왔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보도했다.

미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성단에서 천이행성(별의 앞면을 지나가 일시적으로 별빛을 가리는 행성)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케플러 망원경의 외부행성 추적 작업은 보다 짧은 별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천체물리학 저널 최신호에 발표했다.

우리 태양계 바깥의 우주에서 행성들을 찾아온 학자들은 지금까지 450여개의 외부행성들을 발견했지만 이런 행성들은 대부분 외곽이 별 주변에서 발견됐

을 뿐이다. 우주과학자들은 약 10년 전부터 구상성단에서 외부행성을 추적해 왔으며 '47 Tuc'라는 성단에서는 약 3만4천개나 되는 별 주변에서 최소한 10여개의 행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왔다.

연구진은 그러나 "구상성단들은 외부행성에는 아주 적대적인 존재로 밝혀졌다. 왜냐하면 이처럼 별의 밀도가 높은 성단에서 행성들은 가까운 별에 의해 원래의 항성계에서 쫓겨나기 쉬운데다 이런 성단들은 행성의 원료가 되는 금속 성분이 적어 주변에 행성이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개발한 별의 기조력에 의한 행성 캐드 쇠퇴 모델에 따르면 우리 태양-목성 간 거리에 비해 중심별에 최소한 3~4배 더 가까운 '뜨거운 목성'들은 쉽게 파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그린란드 빙상에 나노 다이아몬드층

그린란드의 빙상에서 미세한 다이아몬드 입자들이 무수히 들어 있는 지층이 발견돼 약 1만 2900년 전 북미와 유럽에 혜성의 파편들이 지구에 떨어졌을 것이라는 가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보도했다.

미국 과학자들은 지난 2008년 그린란드 빙상에서 특수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다이아몬드 미립자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특이한 지층을 발견했다고 빙하학 저널 최신호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이것이 거대한 극지 빙상과 산악 빙하를 비롯, 지구상의 얼음층에서 발견된 최초의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천체의 대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1만 2900년 무렵과 일치하거나 근접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 시기는 북미의 클로비스 문명이 사라진 시기뿐 아니라 매머드와 낙타, 말, 검치호 등 북미의 많은 대형동물들이 멸종한 시기와도 일치한다. 연구에 참여한 산타바바라 캘리포니아 대학의 제임스 케네트 교수는 지난해 산타바바라 근해의 산타 로사 섬에서 나노 크기의 다이아몬드가 함유된 퇴적층을 발견했다고 보고하기도 했는데 그는 두 지역에서 같은 시기의 다이아몬드 지층이 발견된 것은 우주로부터 날아온 천체의 충돌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누구나 원하지만 누구도 얻지 못했던 새로운 뉴스
- 깊이와 미래를 보여주는 뉴스
- 언제 어디서나 모든 매체에서 만날 수 있는 뉴스
-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뉴스
- 대한민국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뉴스

CBS가 대한민국 No.1 TV뉴스채널을 만듭니다!

'대한민국 뉴스의 대명사' CBS가 '인터넷 뉴스의 최강자 노컷뉴스'의 신화를 넘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보도전문채널(보도PP)에 도전합니다.

CBS와 미래를 함께 하실 투자자를 찾습니다.

CBS는 섬김과 나눔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자신있게 약속드립니다.

- 파트너 절대 존중
- 투자자의 조기 실현
- 주주 가치 극대화

참여방법: 자세한 참여방법은 CBS 홈페이지(www.cbs.co.kr)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연락처: 서울 본사 신규미디어사업본부 02-2650-7080~4 / 전국CBS 지역방송본부 총무국
 이메일: goodnews@cbs.co.kr